

孟母斷機[맹모단기]

孟 : 만 맹, 母 : 어미 모, 斷 : 끊을 단, 機 : 베틀 기

孟子之少也 既學而歸한대 孟母가 方績이라가 問曰 學이 何所至與오. 孟子曰 自若也이니다. 孟母가 以 刀로 斷其織이어늘 孟子가 懼而問其故한대 孟母가 曰 子之廢學이 若吾斷斯織也라. 孟子가 懼하여 旦夕으로 勤學不息하고 師事子思하여 遂成天下之名儒러라. 君子謂 孟母는 知人母之道矣라 『列女傳』

孟子之少也 맹자가 어렸을 때
 既學而歸 이미 배웠다고 돌아왔는데
 孟母方績 맹자의 어머니가 바야흐로 베를 짜다가
 問曰 學何所至與 묻기를 “학문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느냐?”하니
 孟子曰 自若也 맹자가 말하기를 “전과 같습니다.”하니
 孟母 以刀斷其織 맹자의 어머니는 칼로 짜던 베를 끊거늘
 孟子 懼而問其故 맹자는 두려워 그 이유를 물으니
 孟母 曰 맹자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子之廢學 “네가 학문을 그만두는 것은
 若吾斷斯織也 네가 학문을 그만두는 것은 내가 이 베를 끊는 것과 같다.”하였다
 孟子懼 맹자는 두려워
 旦夕 勤學不息 밤낮으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쉬지 아니하고
 師事子思 자사를 스승으로 섬겨
 遂成天下之名儒 마침내 천하의 이름난 선비가가 되었다
 君子謂 군자는 이르기를
 孟母 知人母之道矣 “맹자의 어머니는 사람의 어머니가 되는 도리를 알았다”고 하였다.

季布一諾[계포일낙]

季 : 끝 계 布 : 베풀 포 一 : 한 일 諾 : 허락할 낙

《사기(史記)》 〈계포전(季布傳)〉에, 초(楚)나라 사람 계포(季布)는 젊었을 때부터 의협심(義俠心)이 강해 한번 '좋다!'라고 약속한 이상에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이런 계포가 한(漢)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가 천하를 걸고 싸울 때 항우의 장수로서 출전해 몇 차례 유방을 괴롭혔는데, 항우가 패망하고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자 계포의 목에 천금의 현상금이 걸려 쫓기는 몸이 되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고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를 고조(高祖) 유방에 천거하기까지 했다. 덕분에 그는 사면과 동시에낭중(郎中)이라는 벼슬을 얻었고 다음의 혜제(惠帝) 때에는 중랑장(中郎將)에 올랐다.

그는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서도 의로운 일에 힘썼으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흉노(匈奴)의 선우(單于)가 당시 최고권력자인 여태후(呂太后)에게 칼보는 투의 편지를 조정에 보내온 일이 있었다. 이에 진노한 여태후는 흉노 징벌을 위한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소집했다. 먼저 상장(上將) 변쾌(樊噲)가 나서며, "저에게 10만 병력을 주십시오. 소신이 오랑캐들을 깨끗하게 쓸어 버리겠습니다"라고 큰소리쳤다. 당시는 무슨 일이나 여씨(呂氏) 일문이 아니고는 꿈쩍도 못 하던 때이다. 신하들은 여씨 일문의 딸을 맞아서 여태후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는 변쾌에게 잘 보이려고 이구동성으로 맞장구를 쳤다.

그때였다. "변쾌의 목을 자르십시오" 하며 감히 나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계포였다. 계포는 한 고조(漢高祖)께서도 40만 군대를 거느리고 정벌에 나섰다가 평성(平城)에서 그들에게 포위당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만으로 흉노를 응징하겠다는 것은 망발(妄發)입니다. 진(秦)나라가 망한 것은 오랑캐와 시비를 벌이고 있을 때 진승(陳誠) 등이 그 허점을 노리고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에게서 입은 상처는 오늘까지도 아물지 않았거늘 변쾌는 이것도 모르고 위에 아첨하기 위해 천하의 동란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포의 강한 신념에 찬 목소리에 좌우신하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계포의 목숨도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태후는 즉시 폐회를 명하였고 그후 다시는 흉노 징벌을 입에 담지 않았다. 여태후는 계포의 신의를 믿고 이 사건을 덮어두었던 것이다.

초나라의 조구(曹丘)는 변설가(辯舌家)이며 권세와 금전욕이 강한 사람으로 경제(景帝)의 외숙뻘 되는 두장군(竇長君)의 식객(食客)으로 있었다. 계포는 두장군에게 "조구는 [교언영색](#)(巧言令色)하는 사람이라고 듣고 있으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때 여행에서 돌아온 조구가 두장군에게 계포에게 보낼 소개장을 써달라고 부탁하러 왔다. 두장군은 계포가 보낸 편지를 보이며, "계포는 자네를 싫어하니 가지 말게" 하고 말했다. 그러나 조구는 억지로 소개장을 써 달라서 계포를 찾아가, "초나라 사람들은 황금 백 냥을 얻는 것은 계포의 한마디 승낙을 받는 것보다 못하다[得黃金百斤 不如得季布一諾]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하며 계포를 칭찬했다 한다. 그후부터 사람들은 '계포일낙'을 간단하게 줄여 '계낙'이라고도 했으며 또는 '금낙(金諾)'이라고도 하여 '틀림없이 알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또 당대(唐代) 위징(魏徵)의 술회시(述懷詩)에, "계포는 한 약속을 거둬 하는 일이 없고, 후영은 약속한 한 마디의 말을 중히 여긴다[季布無二諾 侯瀛重一言]"고 하였는데, 오늘날의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에 해당할 것이다.

他山之石[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자신의 학덕을 연마하는 데에 도움이 됨을 비유한다. 《시경》 〈소아편(小雅篇)〉의 '학명(鶴鳴)'에 나오는 구절 '... 타산지석 가이위착(他山之石 可以爲錯; 다른 산의 못생긴 돌멩이라도 구슬 가는 숫돌은 됨직한 것을!)'에서 나온 말이다.

중국 타산에는 돌멩이가 많고 또 중국 형산에는 옥이 많은데 타산의 돌을 가져다가 형산의 옥을 갈아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든다는 의미

유래: 이 말은 《시경(詩經)》 〈소아편(小雅篇)〉 '학명(鶴鳴:학의 웃음)'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시의 한 구절이다.

-학이 높은 언덕에서 울거늘, [鶴鳴于九臯]
 그 소리는 온 들에 들리는도다. [聲聞于野]
 물고기가 잠겨 연못에 있다가, [魚潛于淵]
 혹은 물가로 나와 노는도다. [或在于渚]
 저 동산에는 즐겁게도, [樂彼之園]
 이에 심어놓은 박달나무가 있으며, [爰有樹檀]
 그 아래에 오직 개암나무가 있도다. [其下維縠]
남의 산의 돌도, [他山之石]
가히 써 숫돌로 삼을 수 있도다. [可以爲錯]
 학이 높은 언덕에서 울거늘, [其下維縠]
 그 소리 하늘에 들리는도다. [聲聞于天]
 물고기가 물가에 있다가, [魚在于渚]
 혹은 잠기어 연못에 있도다. [或潛于淵]
 저 동산에는 즐겁게도, [樂彼之園]
 이에 심어놓은 박달나무가 있으며, [爰有樹檀]
 그 아래에는 오직 닻나무가 있도다. [鶴鳴于九臯]
남의 산의 돌에, [他山之石]
가히 써 구슬을 갈 수 있도다. [可以攻玉]

쉽게 풀이한 유래: 중국의 고사에 보면 타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산은 정말 별 볼일 는 산으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는데 구슬을 다듬을때 그 산의 돌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산 주인한테 별 도움이 안되었지만 다른 사람이 구슬을 다듬는데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타산지석이란 "다른 이의 잘잘못을 보고 교훈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邯鄲之步 [한단지보]

- 1) 음훈 : 한단지보(邯鄲之步)
- 2) 관련사항 : [출전] 《莊子》〈秋水篇〉
- 3) 의미 : 자기가 지켜야 할 본분을 모르고 마구 남의 흉내를 내면 두 가지를 다 잃는다는 말.
- 4) 유래 : 장자(莊子)의 선배인 위모(魏牟)와 명가(名家)인 공손룡(公孫龍)과의 문답 형식으로 된 이야기가 있다

《莊子(장자)》 秋水篇(추수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생겨난 말이다. 위모가 공손룡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또한 그대는 걷는 법을 배우려 수릉(壽陵)의 젊은이가 한단(邯鄲)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는가? 아직 그 나라의 걸음걸이에 능 하지 못하였는데 제 나라의 걸음걸이마저 잃어, 곧 엎드려 기어서 제 나라로 돌아 갔을 뿐일세. 당장 그대가 가지 않는다면 장차 그대의 방법을 잃고 그대의 본분을 잃어버릴 것일세."

공손룡은 입을 벌린 채 다물지 못하고, 혀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아, 곧 달려서 도망쳐 갔다.

燕(연)나라의 한 소년이 조나라의 서울 한단에 가서 우아한 걸음걸이를 보고 배웠으나 완전하게 배우지 못하고 돌아와 자기 고향의 걸음걸이도 잊고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조나라는 큰 나라, 연나라는 작은 나라다. 한단은 대도시이고, 수릉은 연나라의 수도이며 자그마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자기의 근본도 잊고 남의 흉내를 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말이다. **한단학보(邯鄲學步)** 라고도 한다.

- 5) 원문 : 且子獨不聞 夫壽陵餘子之學行于邯鄲與 未得國能 又失其故行矣 直匍匐而歸耳

今子 不法 將忘子之故 失子之業 公孫龍口呎而不合 舌舉而不下 乃逸而走.

捲土重來 [권토중래]

捲 : 말 권 土 : 흙 토 重 : 거듭 중 來 : 올 래

:한번 싸움에 패하였다가 다시 힘을 길러 쳐들어오는 일, 또는 어떤 일에 실패한 뒤 다시 힘을 쌓아 그 일에 재차 착수하는 일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당(唐)나라 말기의 대표적 시인 두목(杜牧)의 칠언절구 《제오강정(題烏江亭)》에서 유래되었다. 두목은 항우(項羽)가 유방(劉邦)과 패권을 다투다 패하여 자살한 오강(烏江)에서 "승패란 병가에서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니, 부끄러움을 안고 참을 줄 아는 것이 사나이라네. 강동의 젊은이 중에는 준재가 많으니, 흠먼지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왔다면 어찌 되었을까(勝敗兵家事不期 包羞忍恥是男兒 江東子弟多才俊 捲土重來未可知)"라고 읊으며 아쉬워하였다. 항우가 패전의 좌절을 딛고 훗날을 도모하였다면 다시 한번 패권을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여기서 유래하여 권토중래는 어떤 일에 실패하였으나 힘을 축적하여 다시 그 일에 착수하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勝敗兵家事不期 包羞忍恥是男兒 江東子弟多才俊 捲土重來未可知

項王 自刎而死

於是項王乃欲東渡烏江。烏江亭長檣船待，謂項王曰：

「江東雖小，地方千里，衆數十萬人，亦足王也。願大王急渡。今獨臣有船，漢軍至，無以渡。」

項王笑曰：「天之亡我，我何渡為！且籍與江東子弟八千人渡江而西，今無一人還，縱江東父兄憐而王我，我何面目見之？縱彼不言，籍獨不愧於心乎？」

乃謂亭長曰：「吾知公長者。吾騎此馬五歲，所當無敵，嘗一日行千里，不忍殺之，以賜公。」

乃令騎皆下馬步行，持短兵接戰。獨籍所殺漢軍數百人。項王身亦被十餘創。

顧見漢騎司馬呂馬童，曰：「若非吾故人乎？」馬童面之，指王翳曰：「此項王也。」

項王乃曰：「吾聞漢購我頭千金，邑萬戶，吾為若德。」乃自刎而死。

於是項王乃欲東渡烏江。烏江亭長檣船待，謂項王曰：

「江東雖小，地方千里，衆數十萬人，亦足王也。願大王急渡。今獨臣有船，漢軍至，無以渡。」

項王笑曰：「天之亡我，我何渡為！且籍與江東子弟八千人渡江而西，今無一人還，縱江東父兄憐而王我，我何面目見之？縱彼不言，籍獨不愧於心乎？」

乃謂亭長曰：「吾知公長者。吾騎此馬五歲，所當無敵，嘗一日行千里，不忍殺之，以賜公。」

乃令騎皆下馬步行，持短兵接戰。獨籍所殺漢軍數百人。項王身亦被十餘創。

顧見漢騎司馬呂馬童，曰：「若非吾故人乎？」馬童面之，指王翳曰：「此項王也。」

項王乃曰：「吾聞漢購我頭千金，邑萬戶，吾為若德。」乃自刎而死。

이리하여 항왕이 곧 동쪽으로 가 오강을 건너고자 하였다. 오강 정장이 배를 대기하여 기다리며 항왕에게 이르길

강동이 비록 작으나 땅이 사방 천리요, 사람은 수십만이라 역시 왕노릇하기에 족합니다. 원컨대 대왕께서 급히 강을 건너 십시요. 지금 신 혼자만이 배를 가지고 있으니 한군이 오더라도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하였다.

항왕이 웃으며 말하길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 내가 어찌 강을 건너겠는가? 또한 나는 강동 제자 8천명과 더불어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다가 지금 돌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비록 강동 부형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왕노릇하게 하더라도,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보겠는가. 비록 그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나 홀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곧 정장에게 이르길 "나는 공이 장자(덕망 있는자)임을 알고 있다. 나는 이말을 5년간 탔고 당할 적이 없었고 일찌기 하루에 천리를 다녀서 차마 죽일 수 없어 공에게 주겠소"

마침내 기병이 모두 말에서 내려 걷게 하여 단검을 들고 접전하였다. 항적 홀로 한군을 죽인 것이 수백인이었다. 항왕 몸 역시 십여군데 창에 찔리었다.

한의 기사마 여마동을 돌아보며 말하길 "그대는 나의 옛사람(옛부터 아는 자)이 아닌가?" 하였다. 마동이 그쪽을 보고 왕예에게 손짓하며 말하길 "이자가 항왕이다"하였다

항왕이 곧 말하길 "내가 듣기에 한나라가 나의 목에 천금과 읍 만호를 현상금으로 걸었다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덕을 배풀겠다"하며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